대불산단 중소형 조선사 숙원 '플로팅도크' 구축

길이 115m, 최대 5000t급 진수
1척당 물류비 3억여원 줄어
내년까지 45척, 114억 비용 절감

영암군은 대불부두에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사업으로 추진한 플로팅도크가 완성됐다고 16일 밝혔다.

플로팅도크 규격은 전장 115m, 폭 34m로 최대 5000t급 선박을 진수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불산단에서 선박을 진수하는 데에 드는 물류비가 1척당 4억2000만원 들어갔지만, 플로팅도크 구축에 따라 이를 이용하면 3억2000만원이 절감돼 1척당 1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절감으로 대불산단 내 중소형 조선사들은 선박 수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등 월등한 강점을 지니게 됐다.

영암 대불부두에 중소형 선박 공동 건조시설인 플로팅도크가 구축됐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은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60억원에 군비 16억8000만원을 보태는 등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했다.

대불국가산단의 조선산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 선박 제조 관련 기업체들이 산단 입주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지역 기반산업으로 집적화·특화됐다.

그러나 주로 대형선박 블록 조립 등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사업에 편중됐고,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국제 조선경기 동향·이슈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산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영암군과 대불국가산단 조선사 등은 중소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플로팅도크를 이용한 첫 선박 진수는 300t급 선박으로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플로팅도크 구축으로 내년까지 총 45척, 144억원의 선박 원가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대불국가산단 조선업계의 숙원사업인 선박 진수장이 구축됐다"며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레저선박 개발사업과 친환경에너지 추진선박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 금강산에 34.26㎞ 명품 둘레길 조성

내년부터 3년간 26억원 들여 자갈·흙·모래·꽃길 다양한 구성

해남군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해남읍 금강산에 명품 둘레길이 조성된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3년간 사업비 26억6700만원이 투입해 금강산 일대에 총연장 34.26㎞의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둘레길은 금강산·만대산 일대의 기존 임도와 등산로 등 25.89㎞를 연결하고 미개설 구간에는 임도 8.37㎞를 새로 낸다.

둘레길은 해남읍 팔각정(태평정)을 기점으로 마산면 아침재, 은적사, 북창, 송석, 옥천면 신계, 해남읍 금강골 구간까지 이어진다.

해남의 역사가 있는 이야기 길이자 자갈길, 흙길, 모래길, 꽃길 등 다양한 노선으로 구성해 해남읍권의 명품 둘레길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임도 내에 위치한 해남읍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을 비롯해 편백·백합 나무숲 구간, 광활한 들녘과 주작산·흑석산의 절경이 조화를 이룬 구간 등도 둘레길 내로 편입시켜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마산면 송석에서 옥천면 신계 구간은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바이킹 길로 정비된다.

해남군은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친환경 공법으로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별 관리구간을 지정해 주민 생활형 둘레길을 만들 방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홍주 거리로 오세요"

진도군, 골목경제 상권개발
행안부 사업 선정 10억 확보

진도군이 장기화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에 나섰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상권개발사업에 '홍주가 흐르고 진도개도 신명나는 오홍통'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진도군은 읍내 중심상권 기능을 강화하고 진도만의 고유 정체성인 홍주나 진도개 등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폐가와 주차장 공간을 공동체 커뮤니티로 조성해 소통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협동조합 판매대와 공동 조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과 상인, 관광객들을 위한 사랑방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골목경제 협의체 운영으로 협동조합 설립, 홍주 판매소 '홍주상점' 운영, 진도개를 주제로 캐릭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주민과 상인, 전문가 등 골목경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특한 문화·관광·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군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에 나섰다. 진도읍 상가 전경. 〈진도군 제공〉

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19일부터…입출항 모든 선박

완도해양경찰은 해상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낚시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18일까지 음주운항 단속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화물선, 어선 등 완도해상을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단속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등이 활용되며 해상과 육상과 연계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음주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되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완도해경은 올해 4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환경오염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4륜형 전기이륜차·농업용 전기차
영광 대마산단·읍시가지 주행 실증

영광 대마산단과 읍시가지에서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 실증이 시작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광 대마전기차산업단지와 영광읍 시가지 등지에서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 실증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가운데 2·3륜형은 물품을 실을 수 있었지만, 안전성이 높은 4륜형은 규제 때문에 물품을 실을 수 없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이 1명으로 제한돼 있어 농촌에서 노인 부부가 함께 탑승할 수 없어 불편이 컸다.

중기부는 "이처럼 농촌 작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7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 적재가 허용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돼 주행 실증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번에 주행 안전성을 검증받는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는 지난해 8월 연간 3만 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공장이 세워지고, 올해 6월에는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이 준공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상상인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예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붉음이 제 몸을 휜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답으로 칠게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의로움은 B형 -新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콰이어 신전 강대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정영주 시집